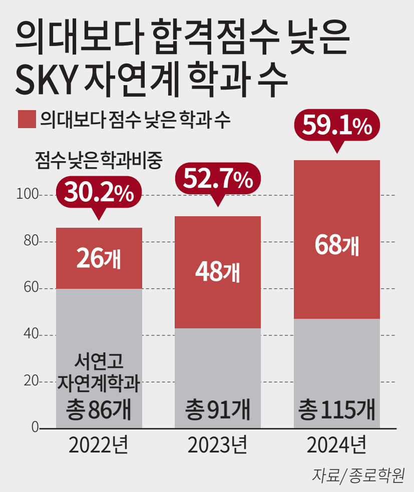
# “서울대 보다 의대 갈래요” SKY 자연계 학과 합격선 하락

**2024학년도 SKY 자연계 60% 전국 의대 최저보다 합격선 낮아 “합격선 낮은 학과 더 많아질 것”**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 자연계 학과 중 의과대학 최저 합격점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 수가 2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쏠리면서 SKY대학 자연계 합격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30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의대·치과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및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 비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기준 서·연·고 자연계 학과 115개 중 전국 의대 최저합격점수보다 낮은 학과는 68개로, 59.1%를 차지했다. 합격선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상위 70%컷, 즉 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2022학년도 30.2%(86개 학과 중 26곳), 2023학년도 52.7%(91개 학과 중 48곳)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합격선이 자연계 낮은 학과 비율은 2022학년 대비 2년 새 2.61배 증가했다. 이 기간 서·연·고 자연계 학과가 늘어난 것은 학과 신설, 기존 학과 세분화, 전형 부문 세분화 등이 원인이다.

2024학년도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전국 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9개 학과로, 전체학과 115개 학과 중 33.9% 차지했다. 2022학년도에는 86개 학과 중 29개 학과로 33.7%를 차지했다.

단, 2023학년도에는 91개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23개인 67.0%가 의대보다 합격률이 높은 이례적인 기록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 수가 적은 치대의 특정년도에 합격선이 높아질 경우,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보다 치대 합격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국 의대 합격선과 비교하면,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정시 합격점수가 낮은 학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지원자도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쏠림 정도에 따라 의대보다 합격점수가 낮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며 “2025학년도 정시 입시에서 의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볼때,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혼밥탈출’ 등 1인가구 맞춤 지원

**10가구 중 4가구 ‘1인가구’ 정리 컨설팅 병원 동행 등 은둔·고립 막고 보안 늘려**

1인가구 맞춤형 경제교육. /서울시

서울 열 집 중 네 집이 1인가구에 이르면서 서울시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일상과 자립, 연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그간 다른 세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세대인 중장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로 전체가구(414만 가구)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고립·은둔과 저장 강박을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정리수납 컨설팅’이 신규로 가동된다. 특히 고립·은둔 고위험군과 저장강박이 의심되거나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일부영역 정리수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년이 혼밥에서 벗어나도록 공동식사도 제공된다. 공동식사를 지원하는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을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신규로 운영한다.

혼자 병원을 찾기 힘든 1인가구의 병원동행 서비스는 횟수를 확대한다.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동행 등을 지원한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골목길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보안등은 대폭 늘린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장소에 AI기반 지능형 CCTV 약 1800대를 신설한다. 아울러 화질개선과 보안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의 노후 CCTV 3300여 대 교체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도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골목길 스마트보안 ▲맞춤형 경제교육▲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우리동네 펫위탁 ▲우리동네돌봄단·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 의대생 속속 복귀… 수업거부 여부 ‘변수’

**복귀 마감 앞두고 의대생 등록 이어져 대학 “수업거부, 유급·제적처리할 것”**

정부가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월 말일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대학 복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단,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 거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반면,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복귀 범주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생들이 최근 100% 등록한 데 이어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 휴학을 멈추고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학생 복귀 규모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와 울산대는 전원이, 연세대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뒀지만, 이후 ‘전원 복귀’ 기준을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꿨다. 절반 가량 학생이 돌아오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복귀 의대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번 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 최소 학점 수강 신청 등의 방식으로 투쟁 방식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투쟁은 복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도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AI 등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건국대학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지난 28일 건국대 신공학관 1층 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및 실감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건국대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AI·SW 기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실감미디어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모델 구축 ▲초·중·고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교사 연수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원종필 총장은 환영사에서 “건국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늘봄교사 양성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교육청,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 배포

**컴퓨터 없이 정보과학 핵심개념 학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놀이로 경험하는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를 제작해 31일부터 서울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총 1368개교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언플러그드(unplugged)란, 컴퓨터 없이 신체 활동이나 토의, 역할놀이 등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과학의 핵심 개념을 배우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실과 ‘정보’ 단원과 중학교 정보 교과의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등 5대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AI와 SW 교육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없이도 놀이와 협력 중심의 체험을 통해 디지털 개념을 쉽게 익히고, 실생활과 연결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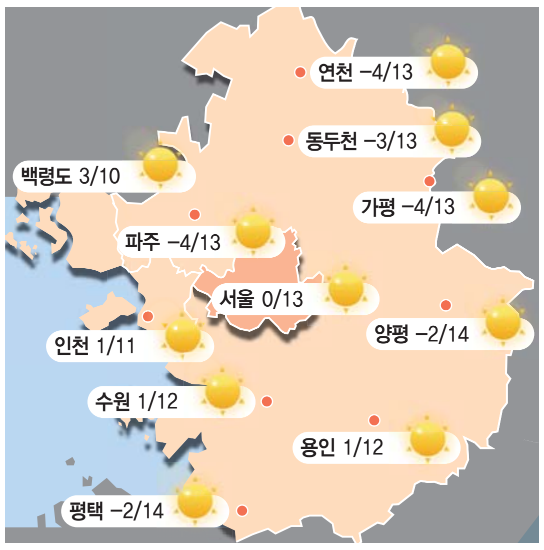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뜸 / 06:19 | 해짐 / 18:54

3월 31일 (月) 음력 : 3월 3일

수도권 날씨 0 ~ 13℃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덴마크, “美 부통령 말투 달갑지 않아…안보 협력 강화에는 동의”

▲트럼프, 관세 도입 후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진 뉴시스

▲미얀마 지진, 원폭 334개 맞먹는 위력…사망자 10만 넘길 가능성도

▲‘反 머스크’ 전 세계 확산…각국 테슬라 매장 곳곳에 시위대 결집

▲나토, 내주 외교장관회의…美방위비 증액 논의할 듯

▲하마스, 중재국 새 정전 제안 수락…이스라엘군은 라파 공격 지속